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9호 【루게 제24997호】 주제 104 (2015)년 8월 7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학습 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학습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었다.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연락회 공동대표인 이에 마사지단장이 해당
부분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바랍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99호

주제104(2015)년 8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을 제정함에 대하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억센 기상으로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펼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 70돐, 일제패망 70년이 되는 8월 15일을 맞이하게 된다.

민족재생의 은인이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혈전전리를 헤치시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신 8월 15일은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중추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날이다.

이 력사의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세기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인민에게 해야 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떠온 불구대전의 원수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슴끓이고있다.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삼천리강토를 무참히 짓밟고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말살 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는 천주에 용서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피로 얼룩진 일제의 백년죄악을 결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영원토록 세계만방에 펼쳐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저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동경 127° 3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
- 2. 평양시간은 주제104(2015)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평양차량수리공장과 은파광산에 모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평양차량수리공장과 은파광산에 모시었다.

평양차량수리공장과 은파광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신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천세만세 높이 받들려는 이곳 로동계급과 일군들의 드림

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평양차량수리공장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를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갈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유색 금속광물이 많이 매장되어있는 은파지역에 광산을 개발하도록 하시고 당과 국가, 군대의 전 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십차례의 강령적교시를 주시었다.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바치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평양차량수리공장과 은파광산에서 진행되었다. 이곳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601호

주제104(2015)년 8월 6일

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체육강국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식 경기전법으로 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선군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기 위한 충공격전에 떨치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크게 기여한 선수, 감독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인민체육인칭호 2명

공훈체육인칭호 4명

김국향
신정림

김은향
송남향

문판옥
정혜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백두령장의 불멸의 업적 천세만세 빛내이자

중 앙 연 구 토 론 회 진 행

【평양 8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승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중앙과 평양시인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군들, 무역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일군상징기관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혁명사상과 로선,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었고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반토대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을 해설증명한 문헌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20상상의 괴이런 투쟁으로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습니다.》

로동신문사 책임주최 리영식은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빛나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신 항일혁명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믿고 인민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한 인민의 운명개척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우리 조국은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세상에 위용떨치게 되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시련을 열어놓은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선신 첫 시기에 벌써 혁명은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할수 있고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전리를 발견하시었다으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혁명의 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주체적당건설로선과 새혁의 정권건설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전진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할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주체적혁명로선들은 기성리론에서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로선이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시원으로 되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조선혁명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철저한

자주정신, 창조정신이었다.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주체혁명의 혁명적주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린 력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를 창건하기에 앞서 당부터 먼저 창건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이나 선형한 혁명리론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사업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담당하고 이끌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주력군, 핵심력량부대를 마련하시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당면적 전리의 힘으로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천세만세 길이 빛날것이다.

김일성군사총합대학 부총장 주성철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사상과 명활무쌍한 명군론에서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천재적인 군사사상이시이다. 방대한 현대적무장장비와 경제력을 믿고 아시아의 《앵주》가 되려고 날뛰는 일제와의 대결에서 우리 수령님의 유일한 군력은 인민의 힘과 지혜였다.

인민이 죽자고 후방이며 정규군이라는 독창적인 무장투쟁이론에 따라 항일대전을 인민전쟁으로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주체인 인민, 군인대중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혁명군대의 본질적우월성으로 규정하시고 적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우세로 타승할때인 사람중심의 주체적군사사상을 창시하시었다.

항일혁명전쟁의 모든 작전과 전투들은 군인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정치사상적우월성과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신 혁명전쟁의 새시대,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강화, 도덕강화의 력사적시련을 열어주시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대전의 승리와 더불어 주체적혁명무력건설사에 쌓아올린 업적중의 업적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명활무쌍한 명군술로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만고의 명장이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근거지창설과 방위, 그 해산과 팔방한 지역으로의 진출, 반일구국군과의 연합전선형성, 대담무쌍한 전투조직과 간고한 투쟁속에서의 군정학습 등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은 특출한 조직력과 통솔력으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전투적으로 밀고나가는 명군술의 최고정화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빛나게 구현하신 천변만화는 유격전법과 과학적인 전술이 있었기에 저들이 《창대일군》이라고 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의 100년대군을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 세계전쟁사상 유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부강조국건설의 근본초석을 마련하신 회색의 정치리로이시이다》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일성총합대학 부총장 조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독창적인 사상전의 방식으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창조하시어 부강조국건설의 제일이신 창신적제보를 마련해주신 불세출의 정치로이시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상전의 혁명방식과 선군조선의 최강의 무기이며 영원한 빛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몸소 개척하시고 강력히 전개하여오신 사상전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방위와 지도밑에 진행된 동강과 마당거우, 백석탄에서의 군정학습은 우리 혁명의 1세대들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지닌 결결한 투사로 키우며 그들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항일대전을 승리로 빛내이고 조국해방의 대사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전의 나날이었다.

《반일전가》, 《괴바다》, 《성황당》, 《적중대회》를 비롯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몸소 창작하시고 《새날》, 《중소리》, 《3.1절간》과 같은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시어 사상공세의 위대한 무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시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는 항일의 전구들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충성을 높이 올리고 결사판혈의 정신, 연결투쟁정신이 나래치게 한 결정적요인이었다.

일제와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벌리는 속에서도 조국의 메일을 내다보시고 부강조국건설의 근본초석을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특출한 업적이다.

혁명의 길에 나선신 첫 시기에 주체적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E. D》가 키워낸 전위투사들을 골간으로

하는 첫 당조직을 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충당조직을 강화하여 당조직의 조직사상기초를 쌓으시는 한편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방적조선혁명에 대한 유일정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들에 세워주신 인민혁명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인민정권의 원형으로 되고있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당, 정권, 무력건설뿐 아니라 근로단체건설과 통일전선운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부문을 비롯한 부강조국건설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는 대백과사전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력사적부름이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백두의 전통에 토대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이다》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원장 리해정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서어나름이시인 총대중시사상과 로선을 구현하시어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당의 혁명명도방식으로 정립하시으로써 우리 조국을 백두의 선군정통을 영원히 이어가시는 준엄함을 나타내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이다》를 비롯한 혁명의 맥락전승의 가치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교양서적을 창간하시어 혁명사상이라는것을 확증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출초소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시찰은 선군정치의 전면적인 확립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계승해나갈 선군명장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군인정신을 온 사회가 따라배워야 할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시고 국방수위의 국가관리체계를 법적으로 담보하시어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을 철두철미 선군의 원칙에서 조직행태해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의 넓이 깊은 선군의 보검으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고 빛내여주시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군위병, 자주적인민으로 승리하시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민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는것은 백두의 선군정통을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

가 있어 혁명적군인정신과 그 구현인 강령정신이 창조되고 심장의 불화, 함양의 불결이 온 나라에 타올랐으며 장성국가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이 벌어져 일어나게 되었다.

백두의 선군정통에 토대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또 한분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김일성고급학교 교장 명성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버려주며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 불멸의 신념을 지니고 경애하는 현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장자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실현봉이 물이치고 적탄이 비발치는 백두의 전구들에서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어 수령을 보위한 항일혁명정통의 육란정신이아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따라배워야 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승고한 귀감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현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현수님의

제일동지, 제일전구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현수님의 말씀,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결사판혈하는 혁명적기통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을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말씀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의도하는 높이에서 어김없이 집행하는 기강을 철저히 세우며 결사판혈의 기풍, 일본새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총결기, 총발동시키는 사상사업의 능수가 되며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해내는 완강한 실천자, 다재다능한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열화같은 인민감소, 인민사랑의 세계를 귀감으로 삼고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해 발이 달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토론자들은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국해방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린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괄시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굽이쳐오는 온 나라 인민의 지원의 마음

가슴마다 새겨진 고향 어머니들의 당부

지난 7월 12일 온 나라 어머니들의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부락을 안고 너맹중앙위원회와 각 도너맹조직의 일군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왔다.

친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따듯이 부여주고 온 나라 너맹원들의 성의가 담긴 지원물자들이 넘겨주는 그들을 대하며 전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백두정훈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파시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고 굳게 다지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떨떠름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전당적, 전국각적, 전사회적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크게 실천하여 받아안은 너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새한 격정과 남다른 결의로 충만되였다.

위원회일군은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조직한데 이어 지원사업을 통해 크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구체적으로 짜고 들었다.

특히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고향 어머니들의 당

너맹중앙위원회와 각지 너맹조직들에서

부와 기대를 새겨주고 열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모를 막았다.

우리 당의 높은 뜻과 아들딸들을 발전소건설장에 내보낸 너맹원들의 심리상태에 맞게 정치사업자료를 잘 준비하여 각급 너맹조직들에 내려보내며 이어 위원회일군들이 직접 현지에서 나가 강연선전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사회적 분위기와 백두정훈들의 투쟁내용을 참신하고 감동깊이 반영하여 작성한 정치사업자료의 실용성은 대단히 컸다. 누구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진심으로 돕는것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지원사업에 발 벗고나섰다.

너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앞장서서 신안군, 평성시, 평양시, 북강강구역과 모란봉구역, 대동강구역 등을 비롯한 각지 너맹조직일군들이 떨쳐나섰다.

너맹조직별지원경쟁열풍이 새차게 타는 가운데 각급 너맹조직들에서도 선진시대 조신성의 본분을 다하여 발전소건설지원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많이 발휘되였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

도, 평양시, 라선시를 비롯한 각지 너맹위원회들에서는 너맹원들의 애국의 마음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지원사업을 통해 크게 전개해나갔다.

신봉시, 운산군, 평성시, 개성시, 연산군, 덕천시, 순천지구 청년단체연합기업소, 남포시 천리마구역, 신안군, 평양시 서성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과 라선시의 여러 너맹조직들에서는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사상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너맹원들을 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불려일으켰다.

라선시 라진지구 안화동 박영란, 신봉지구 두만강동 채영실, 우암동 전민선, 함흥시 성천구역 편지동 리금옥, 운산군 마거리 김영숙, 평양시 만경구역 가네산현협동조합 리춘애, 만경구역 삼흥 2동 권은실, 신의주시 개혁동 리영희, 방림시 동문동 리영희, 송림시 오룡동 리화순, 연산군 훈포동 리서순, 평안북도 신성리 김영선, 신양

군을 장영애, 리성애, 송화숙, 신양군 인평로동자구 권은심 등 무를 비롯한 수많은 너맹원들이 우리 당을 받드는 깨끗한 총성으로 백두정훈의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였다.

온 나라 너맹원들의 애국충정의 마음, 사랑과 정을 안고 지난 7월 12일 너맹일군들과 너맹원들이 먼길을 달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왔다. 그들 모두가 열렬한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일도 같이하면서 고향의 정, 어머니의 사랑을 한껏 부여주었다.

관산군 읍 최영순동무와 운산군 산상리 너맹원 김경희동무도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당에서 정해진 날짜까지 거어 발전소를 완공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싸우는 고지의 병사들과 언제나 한전호에 서있던 남강마을녀성들처럼 강성국가건설의 총포성 없는 격전장 백두정훈의 청춘들에게 온 나라 어머니들은 절절히 당부한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하루 빨리 발전소를 완공하고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백두정훈이 되어 고향의 품에, 이 어머니의 품에 뭣뭣이 안겨다오.

성, 중앙기관들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전당적, 전국각적, 전사회적지원 열풍이 날을 따라 세차게 일고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1, 2호발전소완공의 그날까지 청년들격대원들, 건설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출기차게 벌려나갈 목표밑에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부원들은 지난 7월 12일과 15일 각각 성, 중앙기관들에서

청년들격대원들의 식생활에 철저히 필요한 많은 량의 후방물자들을 안고는 탁원지도국 일군도 돌격대원들과 일도 같이 하며 발전소완공의 그날까지 출기차게 내달리도록 고무추동하였다.

건설제품공업성, 보건성, 문화성, 수배행정성, 재정성 등 여러 성, 중앙기관에서도 책임일군들이 직접 수많은 설비, 자재들과 후방물자들을 안고 백두정훈들을 찾아 천수배리 먼길을 달려왔다.

현지에 전투파지를 청한 건설제품공업성 일군들은 현장의 잠재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후방물자들을 안고는 탁원지도국 일군들을 세우고는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원들에게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충만한 기세를 열백배로 높여주었다.

보건성 일군들은 물물수송이자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을 찾았다.

차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대한 힘을 넣었다.

성적인 예비를 동원하여 중요 자동차부속품들과 후방물자들을 마련한데 이어 성책임일군이 직접 먼길을 달려와 넘겨주며 운전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문화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이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자기들의 친자식들을 내보낸 심정으로 14종에 720점의 로동보조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였다.

백두대지에 달려와 지원물자들을 넘겨주고 일도 함께 하는 책임일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격대원들은 한몸의 그날 향해 더욱 질풍같이 내달릴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수배행정성의 책임일군이 7월에 성적인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마련한 많은 량의 지원물자들을 안고 현장연합지휘부를 찾았다.

세정성 책임일군들도 지난 7월 말 성정부원들의 뜨거운 지원이 깃든 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왔다.

남이 갈수록 높아지는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중앙원들의 지원열풍은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전체 청년들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고 있으며 자못한 로력적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우리 어머니가 왔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평안남도라진 2소대 대원들을 찾아온 어머니가 왔다.

숙천군 읍 106 인민반에서 살았는 김순희동무이다.

소대원들의 고향집소식이랑 부모형제들의 성의가 담긴 수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5월초에 여기에 왔던 김순희동무는 지난 6월 상연에 또다시 찾아와 2소대 병실에 짐을 풀어놓았다.

그날부터 그는 비단 소대장 김영희의 어머니만이 아니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 남다른 자각이 있게 그는 품에서 대대축산지에서 지어 지어 10여마리의 새끼돼지를 마다하였다.

지난 시기 너맹돌격대원들에

모범적으로 참가했던 그 그때으로 그는 오늘날 대대의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뛰고 있다.

여가시간이면 돌격대원들의 작업복도 세탁해주고 성의가 담긴 찬물을 안고 아이들이 일하는 실험정건설장도 때때로 찾는다.

오늘도 하와르도지구의 1호 2소대 살림집건설을 단독으로 맡아 물공사를 남김없이 끝낸 소대원들을 찾아 현장에 나온 김순희동무, 비록 고향집은 여기서 천리이상 떨어져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웃음에서 고향집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받아안기에 청년들격대원들은 매년 번기며 달려나온다.

《우리 어머니가 또 왔다!》

머칠수 시장위원회 일군회의 회가 긴급히 조직되였다.

이처럼 긴급을 헤치시켜 청년들을 찾아가신 우리 원수님의 발걸음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야 한다.

비록 발걸음은 우리 시의 건설현장을 참가하지 않았어도 지원사업에서는 전국의 앞장에

짧은 기간에 21종에 3천여점에 달하는 수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시의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지는 책임감을 띠고있다.

시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발전소건설지원에서 전담적인 모범단위를 될 각오를 가지고 시민의 청년동맹원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려나갔다.

위원장 장봉길동무는 비롯한 청년동맹일군들은 자기들의 실천적모범으로 시민의 청년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적극 불려일으켰다.

그러하여 지난 설날 남짓한 기간에 5차례에 걸쳐 시민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마련한 성의가 담긴 지원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정성은 백두정훈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백두정훈들을 찾아온 자매

평양시 대성구역 통북동 129 인민반 김순임가정에서

《어머니, 우리 지매는 언제 백두산에 갈수 있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김순임녀성은 한복 몇번이나 두 달린 한복을, 한복속이 이 물음을 받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7월 초 김순임녀성은 남편과 마다하였다.

지난 시기 자식들에게 늘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살고 싶어왔지만 오늘에 와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 6월 하순 중요대사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받아안은 두 딸의 마음속에 백두의 넋, 백두의 칼바람정신부러 더욱 깊이 심어주자.

이런 결심에 그들은 온 가정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날부터 행복과 속박은 대성구역 6월 9일 초급중학교에서 익히는 타악기와 손풍금연주

있는 공연은 청년들격대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비록 이물건의 나날이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팔리러 충정의 마음을 안고 위훈을 세워가고있는 오빠, 언니들의 모습이 자매에게 준 충격은 비할없이 컸다.

김순임가정은 그걸로 혁명의 성지 백두산으로 올랐다. 백두의 넋,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온 백두정훈들을 넘겨주어 인민을 위한 애국충정의 한걸음 영원히 이어갈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글 및 사진 현지도보단



마음도 하나 발걸음도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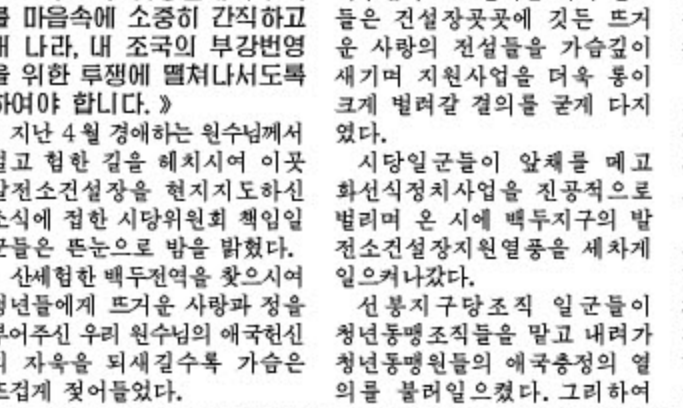
라선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현회의에서 올린 책임일군의 불같은 호소는 그대로 일군들의 애국충정의 피를 끓여 주는 힘 있는 정치사업이 되였다.

머칠수 수많은 물자를 가지고 백두정훈으로 달려오는 시의 일군들은 건설장 곳곳에 깃든 뜨거운 사랑의 전성들을 가슴깊이 새겨며 지원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시당일군들이 앞장을 메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며 온 시에 백두정훈의 발전소건설지원열풍을 새차게 일으키고있다.

선봉지구당조직 일군들이 청년동맹조직들을 맡고 내려가 청년동맹원들의 애국충정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폐막

동행이 진행되였다.

폐막식이 6일 3대혁명전시장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승진내각부총리, 김승주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 발명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료학원, 출판지도국, 평양시 과학기술위원회, 천리마리합공장 등 비롯한 15개 단위가 1등으로

제30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여러 나라 야영단들

환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관통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야영단성원들은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로씨야야영단(1조) 단장 아르프 랑소브는 만경대고향집을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곳이라고 하면서 이는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주시신 위대한분 이시라고 말하였다.

여러 나라 야영단들은 이밖에 문수불놀이장, 풍라풍동어판, 평양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들 도착

각국령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교육일군대표단과 하세동, 박정순 학부장들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수산물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나는 이야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업발전에 힘을 불어넣고 기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경제효과를 높이는것과 함께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소.》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황금해의 새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것과 함께 바다가양식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마진 수산성의 일군들을 만난 우리는 바다가양식을 적극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바다가양식은 부림당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장 최충남: 그렇다. 우리 나라에는 바다가양식에 적합한 수역이 많다. 이 유리한 해양학적조건을 리용하여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 큰 몫을 차지 않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현명히 해결할수 있다. 바다가양식은 물고기잡이에 비해 안정되고 투자 대과성이 높다. 지금 세계적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획량은 크게 줄어들지 못하고있으나 바다가양식에 의한 수산물생산은 지속적으로 장성하고있다. 때문에

많은 해양국에서는 농업과 축산업에 비해 투자자 적고 생산량이 높은 바다가양식을 21세기의 전망적인 해양산업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보고 투자를 늘이고있다.

책임부원 리광봉: 우리에서는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게 하고 풍부한 경험과 토대가 마련되여야 한다.

일제기 위대한 수공업원들께서는 바다가양식의 강령을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고 절름절름 손잡이 아들이기였다. 동서해안의 곳곳에 수많은 바다가양식장이 펼쳐지고 바줄 및 띄우개 생산기지들과 과학연구기지가 세워져갔다.

은 나라가 바다가양식으로 돌출된 1980년대에는 지금의 몇배에 달하는 바다가양식장이 조성되어 맛좋은 양양가물은 다시마, 미역, 김, 김초개 등 여러 가지 수산물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고있다. 그때처럼 은 나라가 펼쳐 나가는 곳마다에서 이 사업을 군중적으로 활발히 전개하면 짧은 기간에 성과가 크게 나타날것이다.

기자: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책임부원 유순철: 바다가양식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한다. 시해의 양식장 1정보에서는 수확 배수량의 다시마를 수확할수 있다. 여기에 드는 자재는 띄우개생산원료 100kg과 바줄

제4차 전국 어린이바둑경기 진행

제4차 전국어린이바둑경기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함흥에서 진행되였다. 전국각지에서 선발전 120여명의 나이런 선

수들이 참가한 이번 바둑경기는 1부류(초하급, 1학년), 2부류(유치원, 초하급)로 나뉘어 벌어졌다. 어린이들의 지능을 높여

경기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등을 성취하였으며 함경남도도 강인도가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우수한 선수와 단체들에 상장이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산물 생산부문의 일군들과 나는 이야기

1. 21정도면 된다. 한번 투자된 자재를 잘 관리하면 여러해 동안 쓸수 있는것이다. 전마선들의 보수와 배수에 요구되는 통나무와 칠장제에 얼마 되지 않는다. 집조개와 굴생산 같은것은 투자 대과확률을 따지면 더욱 리득이다.

련관부원 안민원: 바다가양식의 발전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자체보장을 앞세워야 하며 특히 바줄과 띄우개생산원료를 받은 인민들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면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바다를 건너 지역과 단위에서는 해마다 저지 않는 량의 바다가양식장과 집조개, 굴을 비롯한 조개류를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살림살이를 높여가고있다. 군중적으로 펼쳐나 내부에서를 탐구지원하여 바다를 우리 리용조건을 적극 활용하고있는 사실은 마음속과 달라붙은 열매 든지 덕을 볼수 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기자: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지만 바다가양식도 과학화, 현대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장 최충남: 물론 말이다. 수확고가 높은 품종을 적극 받아들이고 양식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동서해의 바다가양식장에 들어오는 바다가양식장들이

경기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등을 성취하였으며 함경남도도 강인도가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우수한 선수와 단체들에 상장이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래양찬가와 더불어 영생하시는 민족의 아버지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장엄한 전진군열에 위인찬가, 태양찬송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제히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피어린 투쟁으로 인민의 자유와 행복, 민족의 자주적영광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 우리 조국과 인민이 삼가 드린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메아리친다. 창조와 혁신의 동용을 일러들과 밀착된 기상 나래치는 천리방선초소들, 저 멀리 다도해 바다선 외진 저 섬에서도 이 노래는 격조높이 울리고있다.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타고 달랐던 흥모와 청송의 마음 오직 신장이 높여준 노래, 이 노래 부르는 가슴마다에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수령님의 재로든 영성 뜨겁게 어려온다.

조국해방 일흔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항일의 혁정민리를 예지하며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 오신 아버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은 감회속에 되새겨 보고있다.

민족수난의 비탄이 절게 드리웠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랴 끝까지 품으시고 10대의 어린신 나이

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도 오로지 민족을 위해 온몸을 깎고 불태우신분이 바로 아버지 수령님이시었다. 백두산 줄기 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의 피어린 자욱 자욱이 그대로 다 맡아 주듯이 우리 수령님을 떠나 어찌 조국해방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민족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논할 수 있었는가.

탁월한 사상과 천변만화하는 지략, 비범한 명군술로 일제의 100만대군을 포락력하시며 《동양의 병주》로 자처하던 강도 일제를 파멸의 나락에 몰아넣으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사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당국노의 명을 쓰고 영영 숙일만 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어 조선의 양광한 앞날을 펼쳐놓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삼가 드리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조국해방의 민족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메아리였던 우리 수령님께 운명과 미래를 맞춘 민족의 기쁨과 감격, 환희의 분출이었다.

해방된 조국땅에 울려 퍼진 영생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김일성조선의 탄생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이 노래 메아리치는 곳에서 원수들은 전멸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굳건히 지켜졌으며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인민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더없이 사랑하는 것이며 남녘겨레들도 대를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고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에 살고있는 한 로인은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한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민족이 안아올린 태양을 칭송하는 노래로써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솟아 올랐다. 가사 세 개가 부르드라면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우리 민족을 위해,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쳐 불태우신 그 크고 고귀한 업적이 눈앞에 어려와 저절로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노래는 민족의 아버지이신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 민족의 드림있는 소망이 담긴 영부불멸 태양찬가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 노래를 한평생 부르며 살고왔으며 계속

부르고싶은 심정이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가입자는 조국통일법민족통일혁명전쟁 남측본부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오늘도 남녘민중의 가슴을 설매이게 하며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송가에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력사가 력력히 어려있다고 썼다.

광주의 한 시민도 집으로 찾오는 친구들에게 이 세상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보다 더 훌륭한 노래는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태양찬가도 영원하다. 세기를 이어 부르는 태양찬가속에 겨레의 밝은 앞날, 인류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우리 민족이 가고 인류가 가는 앞길에 태양찬가는 천만년 길이 길이 높이 울려 퍼지리라.》

이것은 비단 이들과의 심정이 아니라, 남녘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가려는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태양민족으로 된다고 그 영예와 긍지를 더해 주는 것은 바로 태양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이다.》

《우리 민족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영원히 높이 부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아버지라 칭찬한 높이 모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유언을 받들어 통일의 령명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남녘겨레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와 더불어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남녘땅 도처에서 꽃같이 울려나오고있다.

억지로 지어낼 수 없는 것이 심장의 노래이고 력력과 강요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전진민족송가이다.

인류역사에 나라와 민족을 이끈 위인도 많았고 그들을 칭송하는 노래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어오신 사람이 위대하고 쌓으신 업적이 위대하며 바치신 생이 위대하여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려는 겨레의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를 받든 그런 위인은 없었다.

백두산천지에 세 주도 팔까지는 온 겨레가 부르고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만리창공에 울려 퍼지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와 더불어 태양의 력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울릴 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향고 부동한 통일 의지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의 도발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소동으로 흐르는 공기마저 팽팽하고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참에 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준엄한 이 시기 적들과 총부리를 직접 대고있는 격전전야의 최전방인 판문점을 찾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에 승업하게 세워져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부불멸할 업적을 회고하시었다. 이윽고 최전방의 판문각 로데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생안경을 드시고 남녘의 강토를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각, 통일각, 정전협정 회담의 장, 정전협정조인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정전판문동지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외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찰을 통해 우리 겨레는 또 한번의 세대의 천출명장,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격조와 환희를 금지 못했으며 온 민족의 한결같은 속마음 조국통일의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을 가다듬었다.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고 남녘의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광풍을 강력한 군사적억력으로 제압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정령 되새길수록 그것은 자기의 힘이 강해만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는 귀중한 말씀이었다.

본사기자

《세월》 호참사의 진실을 인양하라!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항의투쟁 전개

《세월》 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시민단체성원들로 구성된 남조선의 4.16재단과 4.16가족협의회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얼마전부터 진행된 《세월》 호참사상규명과 《시행령》 개정, 조속한 신세인양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신세인양과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신훈실장대책 등 신세인양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마음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는데 대해 가 로막는다면 민중은 《대통령》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 10명여가 서명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였다. 파소경찰이 앞을 가로막으며 투항에 방불하자 그들은 뚝뚝 투항을 벌이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남조선인터넷신문 《뉴스스》에 의하면 해외동포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들을 전개하고있다.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 도이칠란드 베를린, 일본 도쿄 등지에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은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을 전개



《세월》 호참사상규명요구하며 투쟁을 벌리는 해외동포들

남조선인터넷신문 《뉴스스》에 의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7월 31일 《세누리당》 사 앞에서 집회연당의 기만행위를 비난하는 항의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지난해 《세누리당》이 《우리 쌀을 짓길다》 이라고 민중앞에 약속하였고 하면서 이를 요란하게 광고한 선전물들을

반역정당의 기만행위를 단죄

남조선 전지역에 차려놓는데 대해 밝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를 어기고 농식농부기 미국으로 떠러 쌀을 수입하기로 한데 대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미국의 수출업자를 살리려고 남조선농민들을 죽이는 《정

대로 간섭하면서 갈농이라 배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낯색을 살피고 압박하였다. 당시 검찰측은 범죄사실이 명백하였던 전 피피정 보원선거 현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황교안은 이 경우를 무시하고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시켰다. 《보안법》에 의거 구속시켰던 사람들의 수가 10년전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자의 파소경찰을 가능할수 있다.

황교안역도가 집권자가 거역하는 곳은 또 어떻게 끌어주었는가.

역도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승호부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을 뒤튼들고 막내를 남조선정국을 총지휘하는 인 사건의 일러내며 매다다 온 몸통이 그대로 방패막이가 되어 청와대와 여당을 비호하며 문제의 사건들을 온갖 모략으로 덮어버리었다.

《세월》 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피피정당에 대한 각계의 규탄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수사에 제

한편 검찰이 조종된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승호부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을 뒤튼들고 막내를 남조선정국을 총지휘하는 인 사건의 일러내며 매다다 온 몸통이 그대로 방패막이가 되어 청와대와 여당을 비호하며 문제의 사건들을 온갖 모략으로 덮어버리었다.

《세월》 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피피정당에 대한 각계의 규탄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수사에 제

피를 물고 날뛰는 독재자의 앞잡이

피피정 전 총수에는 예순에 가까운 나이에 어찌하지 않게 《충전》, 《파수병》, 《행동대장》 등 가지가지 창피스러운 별명으로 불리우는 자가 있다. 다름 아닌 피피정부총리 황교안이다. 피피정부총리관 직첩에도 그려졌지만 집권자의 눈에 들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왔을 이후 이자의 파소경찰기는 사람들을 더욱 몹시리치게 한다.

황교안은 원래 피피정 권좌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박근혜가 자기의 재갈수첩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오직에 등용하곤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던 어떻게 되어 황교안이 현 집권자 밑에서 일러오래동안 장관직을 해왔고 이 장관에는 《국무총리》 감부까지 쓰여졌는가.

그에 대해 황교안의 한 언론은 황교안의 타고난 파소경찰과 함께 박근혜가 거역하려는 곳을 제일 시련까지 끌어주는 매가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우선 황교안역도의 파소경찰기부터 놓고보자. 이자는 1987년부터 피피정정찰청에서 공안부 검사노릇을 하면서 남조선정기공안부 검사노릇을 우리와 결부시킨 반공화국모략과 평양을 방문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탄저균반입범죄

얼마전 미국방성이 남조선의 오산비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불법반입사건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가 격분을 표시하고있다. 그럼수 밖에 없다. 남조선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불법적으로 반입한 미국이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또다시 퍼뽀치하게 늘어대었기때문이다.

미국방성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발송한 미국방성산하의 한 연구소가 황성화상대인 탄저균을 비활성화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방사선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가 살아남았다고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연구소측의 《본의 아닌 실수》라는 것이다. 미국방성은 이런 구차한 변명과 구실들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조국침략군을 가리우려는 조국침략군을 남조선에 발송한 목적과 범죄자들에게 대한 처벌, 사과문제에 대해서는 일언일사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런 퍼뽀치하기 그지없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남조선인민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남조선》, 《기술적인 실수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평하면서 미국의 무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최근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미국방성은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본토에 있는 생물무기연구소들과 해외의 실험실들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정상적으로 배양하여 생물무기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남조선도 그 대상의 하나이다.

미국이 세계경제력발전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있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대량살상무기들을 팔아주고 있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남조선경제미체침략군의 기지들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생화학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초동거점으로 미국방성이 특별히 주목하고 관심을 돌려는 곳들이다. 남조선 곳곳의 미체침략군지 연구소들에서는 미국방성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유미미체침략》에 따라 살상성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에 대한 실험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남조선의 오산비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대량반입한 걸고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유미미체침략》에 따른 의도적인 책동이었다는

것은 이미 남조선인민들에 의하여 폭로되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미국의 범죄적인 생화학전쟁을 폭로해 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첩보관에게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남조선에 팔아주며 생물무기실험을 강행해 온것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그것을 덮는 당시에 미국은 《우연한 실수》나, 《착오》나 하면서 앞으로의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지》가 이후 어질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 황교안 오만한 미국은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양이 《실수》였다는 처음의 태도를 지금도 고집하고있다. 이것이 남조선인민들의 눈여겨볼 만치 않은 것을 눈여겨보고 저들의 흉악한 생화학전쟁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는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이번 탄저균불법반입사건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는 《실수》 타령을 내놓고 사건의 제반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퍼뽀치한 우용이다. 미국은 이런 퍼뽀치한 우용이다. 미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개선대책을

마련할것》이라는 허언을 늘어놓는 것만 보아도 미체침략군의 생화학전쟁책동에 적극 동조해 나서는 우악한 공범자, 온 남조선민을 미체침략군의 특혜물실험장으로 만드는것도 서슴지 않는 회색의 반역자를 잘 알 수 있다.

통족을 해치기 위해 남조선에 미국의 거대한 핵약과로 만든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사건의 위험천만한 생화학전쟁책동에까지 로물적으로 편승해나서는 이런 핵약역적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미국 탄저균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쓸개배진 메국적 적들이 남조선피피정당은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건의 당동에도 항변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있다. 지어 그 무슨 《생물무기실험》이니, 《대우》이니 하고 오히려 떠들면서 미국의 범죄행위를 극구 비호두하고있다. 미체침략군의 탄저균불법반입사건에 대해 퍼뽀치한 《규정위반도 보기 어렵다.》느니, 미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개선대책을

마련할것》이라는 허언을 늘어놓는 것만 보아도 미체침략군의 생화학전쟁책동에 적극 동조해 나서는 우악한 공범자, 온 남조선민을 미체침략군의 특혜물실험장으로 만드는것도 서슴지 않는 회색의 반역자를 잘 알 수 있다.

통족을 해치기 위해 남조선에 미국의 거대한 핵약과로 만든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사건의 위험천만한 생화학전쟁책동에까지 로물적으로 편승해나서는 이런 핵약역적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미국 탄저균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쓸개배진 메국적 적들이 남조선피피정당은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건의 당동에도 항변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있다. 지어 그 무슨 《생물무기실험》이니, 《대우》이니 하고 오히려 떠들면서 미국의 범죄행위를 극구 비호두하고있다. 미체침략군의 탄저균불법반입사건에 대해 퍼뽀치한 《규정위반도 보기 어렵다.》느니, 미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개선대책을

탄저균실험때막을 뽀칠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탄저균반입조사단이 7월 2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산비공군기지에서 미군이 강행한 탄저균실험의 내막을 하부퍼리 조사할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서울 통산비공군지의 65의로라던 121부총병원에 미군의 생화학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단체는 더우기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력이니 뭐니 하면서 정면 회색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황교안은 이 경우를 무시하고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시켰다. 《보안법》에 의거 구속시켰던 사람들의 수가 10년전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자의 파소경찰을 가능할수 있다.

황교안역도가 집권자가 거역하는 곳은 또 어떻게 끌어주었는가.

역도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승호부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을 뒤튼들고 막내를 남조선정국을 총지휘하는 인 사건의 일러내며 매다다 온 몸통이 그대로 방패막이가 되어 청와대와 여당을 비호하며 문제의 사건들을 온갖 모략으로 덮어버리었다.

《세월》 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피피정당에 대한 각계의 규탄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수사에 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탄저균반입조사단이 7월 2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산비공군기지에서 미군이 강행한 탄저균실험의 내막을 하부퍼리 조사할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서울 통산비공군지의 65의로라던 121부총병원에 미군의 생화학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단체는 더우기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력이니 뭐니 하면서 정면 회색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황교안은 이 경우를 무시하고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시켰다. 《보안법》에 의거 구속시켰던 사람들의 수가 10년전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자의 파소경찰을 가능할수 있다.

황교안역도가 집권자가 거역하는 곳은 또 어떻게 끌어주었는가.

역도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승호부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을 뒤튼들고 막내를 남조선정국을 총지휘하는 인 사건의 일러내며 매다다 온 몸통이 그대로 방패막이가 되어 청와대와 여당을 비호하며 문제의 사건들을 온갖 모략으로 덮어버리었다.

《세월》 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피피정당에 대한 각계의 규탄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수사에 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탄저균반입조사단이 7월 2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산비공군기지에서 미군이 강행한 탄저균실험의 내막을 하부퍼리 조사할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서울 통산비공군지의 65의로라던 121부총병원에 미군의 생화학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단체는 더우기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력이니 뭐니 하면서 정면 회색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황교안은 이 경우를 무시하고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시켰다. 《보안법》에 의거 구속시켰던 사람들의 수가 10년전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자의 파소경찰을 가능할수 있다.

황교안역도가 집권자가 거역하는 곳은 또 어떻게 끌어주었는가.

역도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승호부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을 뒤튼들고 막내를 남조선정국을 총지휘하는 인 사건의 일러내며 매다다 온 몸통이 그대로 방패막이가 되어 청와대와 여당을 비호하며 문제의 사건들을 온갖 모략으로 덮어버리었다.

《세월》 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피피정당에 대한 각계의 규탄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수사에 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탄저균반입조사단이 7월 2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산비공군기지에서 미군이 강행한 탄저균실험의 내막을 하부퍼리 조사할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서울 통산비공군지의 65의로라던 121부총병원에 미군의 생화학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단체는 더우기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력이니 뭐니 하면서 정면 회색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황교안은 이 경우를 무시하고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시켰다. 《보안법》에 의거 구속시켰던 사람들의 수가 10년전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자의 파소경찰을 가능할수 있다.

황교안역도가 집권자가 거역하는 곳은 또 어떻게 끌어주었는가.

역도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승호부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을 뒤튼들고 막내를 남조선정국을 총지휘하는 인 사건의 일러내며 매다다 온 몸통이 그대로 방패막이가 되어 청와대와 여당을 비호하며 문제의 사건들을 온갖 모략으로 덮어버리었다.

《세월》 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피피정당에 대한 각계의 규탄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수사에 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탄저균반입조사단이 7월 2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산비공군기지에서 미군이 강행한 탄저균실험의 내막을 하부퍼리 조사할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서울 통산비공군지의 65의로라던 121부총병원에 미군의 생화학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단체는 더우기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력이니 뭐니 하면서 정면 회색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황교안은 이 경우를 무시하고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시켰다. 《보안법》에 의거 구속시켰던 사람들의 수가 10년전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자의 파소경찰을 가능할수 있다.

황교안역도가 집권자가 거역하는 곳은 또 어떻게 끌어주었는가.

역도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승호부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을 뒤튼들고 막내를 남조선정국을 총지휘하는 인 사건의 일러내며 매다다 온 몸통이 그대로 방패막이가 되어 청와대와 여당을 비호하며 문제의 사건들을 온갖 모략으로 덮어버리었다.

《세월》 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피피정당에 대한 각계의 규탄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수사에 제

가증스러운 친일매국의 더러운 혈통

생산보장것으로 하여 《일본의 버기장》으로 악명떨친 전범기업이다. 신문에 의하면 미프시제철은 전쟁장비생산을 위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 후사시키고 지어 나 어떤 소년들까지 군수공업생들 가혹하게 부려먹었다.

치벌라는 최악의 역사를 이어온 미프시제철은 1960년대 때부터 남조선에 진출하여 제철소건설 등 공적인 대상들을 독점화하면서 막대한 리윤을 뽀냈다. 신문은 그것이 《유신》 독재자와 미프시제철사이의 유착관계때문이라고 까뽀했다. 그에 대해 보기도 하자.

박정희역도는 1963년 피피정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0만USS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미프시제철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결국 역도는 미프시제철이 던져준 돈을 뿌리며 《대통령》 버기장을 썼다. 감지되었던 역도는 이 제철의 고위인물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체면도 다 해버리고 그 무슨 《형편하고 경력이 있는분》이니 뭐니

생산보장것으로 하여 《일본의 버기장》으로 악명떨친 전범기업이다. 신문에 의하면 미프시제철은 전쟁장비생산을 위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 후사시키고 지어 나 어떤 소년들까지 군수공업생들 가혹하게 부려먹었다.

치벌라는 최악의 역사를 이어온 미프시제철은 1960년대 때부터 남조선에 진출하여 제철소건설 등 공적인 대상들을 독점화하면서 막대한 리윤을 뽀냈다. 신문은 그것이 《유신》 독재자와 미프시제철사이의 유착관계때문이라고 까뽀했다. 그에 대해 보기도 하자.

박정희역도는 1963년 피피정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0만USS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미프시제철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결국 역도는 미프시제철이 던져준 돈을 뿌리며 《대통령》 버기장을 썼다. 감지되었던 역도는 이 제철의 고위인물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체면도 다 해버리고 그 무슨 《형편하고 경력이 있는분》이니 뭐니

하고 개어웠으며 그후에는 직접 전까지 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수로 밀접하였다. 그 파지에 박정희역도는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통제로 미프시제철에게 맡겼다고 하며 남조선기업체들은 미프시제철의 배를 빌려주는 예측적인 하청업체, 가공기지로 전락되어 되었다. 이것은 《유신》 독재자와 미프시제철사이의 《특별한 인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 저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흑막속에 가려져있다. 하지만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유신》 독재자와 미프시제철이 추진한 《경제협력》의 리면이 정경유착의 검은 그림자라 비껴있었다는것을 알기에 충분하다.

신문은 박정희역도와 미프시제철사이의 더러운 유착관계는 덮어버릴수 없는 문제이며 더우기 현 피피정당자가 침묵한다 하여 없었던 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신문이 이 폭로기사에 의해 박정희역도가 일본이 던져

생산보장것으로 하여 《일본의 버기장》으로 악명떨친 전범기업이다. 신문에 의하면 미프시제철은 전쟁장비생산을 위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 후사시키고 지어 나 어떤 소년들까지 군수공업생들 가혹하게 부려먹었다.

치벌라는 최악의 역사를 이어온 미프시제철은 1960년대 때부터 남조선에 진출하여 제철소건설 등 공적인 대상들을 독점화하면서 막대한 리윤을 뽀냈다. 신문은 그것이 《유신》 독재자와 미프시제철사이의 유착관계때문이라고 까뽀했다. 그에 대해 보기도 하자.

박정희역도는 1963년 피피정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0만USS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미프시제철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결국 역도는 미프시제철이 던져준 돈을 뿌리며 《대통령》 버기장을 썼다. 감지되었던 역도는 이 제철의 고위인물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체면도 다 해버리고 그 무슨 《형편하고 경력이 있는분》이니 뭐니

준 몇톤의 돈을 받아먹은 대가로 조선민중앞에 저지른 일체의 죄악을 은감아놓든도 모자라 미프시제철을 끌어들이며 특혜를 주는 등으로 백년숙적의 배를 빌려준 메국적악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 피피정당자는 기만만 있으면 그 무슨 《거지》이니 뭐니 하며 《유신》 독재시대를 미화분식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보잘것없는 돈 몇천에 매수되어 민족의 존엄과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일본에 팔고 팔아먹은 애비의 추악한 친일매국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회색한 술책이다.

《유신》 독재자의 더러운 친일매국은 현 피피정당자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최근 일본이 파지 조선인강제징용사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빼앗기 등록하며 오만한꼴을 늘어내고 그중 일부 시설을 운영해온 미프시제철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거부하고있는데 대하여 박근혜정권이 이를 다물고있는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미철정에는 현 피피정당자의 동생인 박근혜가 나서서 용

생산보장것으로 하여 《일본의 버기장》으로 악명떨친 전범기업이다. 신문에 의하면 미프시제철은 전쟁장비생산을 위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 후사시키고 지어 나 어떤 소년들까지 군수공업생들 가혹하게 부려먹었다.

치벌라는 최악의 역사를 이어온 미프시제철은 1960년대 때부터 남조선에 진출하여 제철소건설 등 공적인 대상들을 독점화하면서 막대한 리윤을 뽀냈다. 신문은 그것이 《유신》 독재자와 미프시제철사이의 유착관계때문이라고 까뽀했다. 그에 대해 보기도 하자.

박정희역도는 1963년 피피정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0만USS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미프시제철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결국 역도는 미프시제철이 던져준 돈을 뿌리며 《대통령》 버기장을 썼다. 감지되었던 역도는 이 제철의 고위인물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체면도 다 해버리고 그 무슨 《형편하고 경력이 있는분》이니 뭐니

준 몇톤의 돈을 받아먹은 대가로 조선민중앞에 저지른 일체의 죄악을 은감아놓든도 모자라 미프시제철을 끌어들이며 특혜를 주는 등으로 백년숙적의 배를 빌려준 메국적악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 피피정당자는 기만만 있으면 그 무슨 《거지》이니 뭐니 하며 《유신》 독재시대를 미화분식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보잘것없는 돈 몇천에 매수되어 민족의 존엄과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일본에 팔고 팔아먹은 애비의 추악한 친일매국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회색한 술책이다.

《유신》 독재자의 더러운 친일매국은 현 피피정당자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최근 일본이 파지 조선인강제징용사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빼앗기 등록하며 오만한꼴을 늘어내고 그중 일부 시설을 운영해온 미프시제철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거부하고있는데 대하여 박근혜정권이 이를 다물고있는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미철정에는 현 피피정당자의 동생인 박근혜가 나서서 용

생산보장것으로 하여 《일본의 버기장》으로 악명떨친 전범기업이다. 신문에 의하면 미프시제철은 전쟁장비생산을 위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 후사시키고 지어 나 어떤 소년들까지 군수공업생들 가혹하게 부려먹었다.

치벌라는 최악의 역사를 이어온 미프시제철은 1960년대 때부터 남조선에 진출하여 제철소건설 등 공적인 대상들을 독점화하면서 막대한 리윤을 뽀냈다. 신문은 그것이 《유신》 독재자와 미프시제철사이의 유착관계때문이라고 까뽀했다. 그에 대해 보기도 하자.

박정희역도는 1963년 피피정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0만USS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미프시제철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결국 역도는 미프시제철이 던져준 돈을 뿌리며 《대통령》 버기장을 썼다. 감지되었던 역도는 이 제철의 고위인물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체면도 다 해버리고 그 무슨 《형편하고 경력이 있는분》이니 뭐니

준 몇톤의 돈을 받아먹은 대가로 조선민중앞에 저지른 일체의 죄악을 은감아놓든도 모자라 미프시제철을 끌어들이며 특혜를 주는 등으로 백년숙적의 배를 빌려준 메국적악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 피피정당자는 기만만 있으면 그 무슨 《거지》이니 뭐니 하며 《유신》 독재시대를 미화분식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보잘것없는 돈 몇천에 매수되어 민족의 존엄과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일본에 팔고 팔아먹은 애비의 추악한 친일매국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회색한 술책이다.

《유신》 독재자의 더러운 친일매국은 현 피피정당자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최근 일본이 파지 조선인강제징용사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빼앗기 등록하며 오만한꼴을 늘어내고 그중 일부 시설을 운영해온 미프시제철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거부하고있는데 대하여 박근혜정권이 이를 다물고있는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미철정에는 현 피피정당자의 동생인 박근혜가 나서서 용

본사기자 허영민

